

순정이

대림 제 1주일

제 1독서 : 이사 63, 16b-17, 19b; 64, 2b-7
 제 2독서 : 1고린 1, 3-9
 복 음 : 마르 13, 33-37

“그때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 조심하 항상 깨어 있어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마르 13, 33, 37).

강론

가는 세월 오는 주님

• 서광석 신부 / 광주가톨릭대학 •

다 지나갔습니다. 열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할 일을 다 했다고 지쳐 떨어진 낙엽들이 무엇인가 마지막을 알려줍니다. 싸늘한 이 겨울이 우리의 가슴에 대고 외칩니다. 세월은 갔다고 또 간다고 가슴에 방망이질을 합니다. 세월이 흐르는 것을 모르는 체하는 이에게 들어보라며 소매를 불잡습니다.

낙엽 구르는 소리, 빈 들에 찬바람 소리, 말라 버린 수수대 부딪히는 소리, 연탄 구루마 굴러가는 소리가 세월 흘러가는 소리를 냅니다. 무엇인가 안타까운 느낌, 그리움을 갖게 하고, 옛 시절을 돌아보게 하는 계절입니다.

했어야 하는데, 한 일은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지났고 이제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막을 수 없는 세월이 두렵게도 느껴집니다. 무엇인가 끝을, 인생의 끝도 생각하게 합니다. 국민학생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어떤 철학자도 인간은 죽음을 향해 살며 이것이 근본적인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세월, 그것은 우리에게 간단한 지혜를 선사합니다. 흐르는 세월은 분명 지나가고 누구에게나 끝은 온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세월은 창조주가 우리를 가르치는 칠판과 같습니다. 이 세월이라는 칠판 안에 새싹과 폭풍, 단풍 그리고 꽃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세월은 서슬이 퍼렇던 온갖 것들에 찬서리를 쏟아 부으며 기를 쭉어버립니다. 세월을 알라고 호통칩니다. 그리고 또 호소합니다. 이 짧은 세월을 깨달으라고, 모두가 부질없는데 무얼 망서리느냐고 묻습니다.

세월은 흘러 면 앞날도 분명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랑곳 하지 않고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처럼 분명 주님도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흐르는 것은 오히려 기쁨입니다.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당신의 그 세월로써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66

세월이 흘러 면 앞날이 오듯
분명 주님도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흐르는 것은
오히려 기쁨입니다.

"



다락방의 아들

아버지와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다. “한 번만 더 우리 가정의 계율을 깨뜨리면 너를 추운 다락방으로 보내겠다.” 그러나 아들은 또다시 가정의 계율을 어기고 말았다.

아버지는 아들을 추운 다락방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아들을 추운 다락방에 보낸 부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애는 지금 얼마나 외로울까?” 아버지는 추운 다락방으로 올라가 딱딱한 바닥에서 베개도 없이 잠들어 있는 아들을 꼭 끌어 안았다. 아이의 눈가에서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 쌍용소식에서 -

여명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한상갑(바오로)

12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림 첫주일을 한해의 시작으로 삼는다. 하느님의 역사 안에 끝과 시작을 말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 정한 약속이 있는지라, 우리는 시작과 끝을 계산하며 살아가 마련이다. 그래서 12월을 지내는 가톨릭인의 감회는 특별하다. 지난 한해, 교회의 모습에는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우리를 하나하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가톨릭인이라면 이 대한 결산서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우리 교구는 교구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새교장을 모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것은 주교좌의 오랜 석에서 맛보는 기쁨만은 아닌 듯 싶다. 8개월이 지난 오늘, 우리는 교구 안에서 생기 넘치는 어떤 느낌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느님 백성인 교회,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말 조금씩 마음에 와 닿는 정후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 곧 교회 재정문제를 다루는 교구 재무평의회에 평신도를 임했다는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곁으로 나타나 보이는 한 모이다. 이 일은 한국천주교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일로, 우리 교구가 한국 최초의 자치교구로 설정된 역사와 걸맞는 조치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일의 성과가 어떤 제도보다는 사람에 달려온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 그 제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함을 역사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의 무용론을 말하고자 할 아니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는 사람임을 강하고자 할 따름이다. 따라서 교구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가 지금까지 입고 왔던 옷을 벗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마음의 변화를 실제로 삶으로 살지 않으면 안된다.

하느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창세기 1장 참조)인데, 우리 인간은 그 질서를 무너뜨려 오늘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기조차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말았다. 자연질서의 망가짐은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 꼭 지켜져야 할 많은 질서를 무너졌다. 날이 새고 나면 항상 무섭고도 놀라운 현상들이 져나와 우리의 숨통을 짓누르고 있다. 이러한 역사가 만들어온 기까지 우리(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던가? 날만 새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빈다’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삶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크리스챤의 삶은 항상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다. 우리는 가끔 너무나 피상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 그러나 이 시대의 주님은 바로 내 곁에서 나의 관심과 사랑 나눔 필요로 하는 내 이웃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할 것이다. 지금 그분이 우리(나)를 찾고 계신다.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고.

12월,

그 아쉬움에

내일 걱정은 내일에

박용화(베드로)/용머리 성당

는 무척이나 가을을 많이 탔다. 그것도 해마다 고처럼 공공 애를 정도로 심하게 탔다. 내가 세 번씩 대학을 옮겨 다녀야 했던 강한 신념(?)이 짙은 때도 이 가을이었고,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어 몇 번 고향을 등진 때도 이 가을이었다.

가 유난히 가을을 타는 이유도 그렇겠지만, 많은들이 추남(秋男)이니 어찌나 하면서 가을을 우울하게는 가장 주된 원인은 한해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

이 아닌가 싶다.

스한 봄에 싱그럽게 돌아나는 새싹처럼 한아름 희부풀어 시작했던 한해였는데, 가을에 접어들면서 보니 뭐 하나 제대로 뾰족하게 이뤄 놓은 것 없는 에 젖어 그저 불안하고, 고독하고, 하고 있는 일이 차 않고, 그래서 멀리 떠나고 싶고 그러는 모양이다. 나는 알고 있다. 낙엽은 떨어져 새봄에 피어나는 사람들의 밀거름이 되기 위해 썩어가고 있으며, 불안하고 하지만 결국 그 개똥 철학으로 인해 정신은 단단히 되어 새봄을 희망으로 맞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그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자”(마태6,31).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

예수님의 삐이 있잖은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음을 드리면서,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면 으로 만족하자. 조금이라도 눈길을 돌려 나보다 못한

을 느껴보고 그들에게 참이웃이 될 수 있는 여유도

보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도 충분하다”(마태6,

아직도 이 해는 남아 있고, 다 못한 일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짚음도 남아 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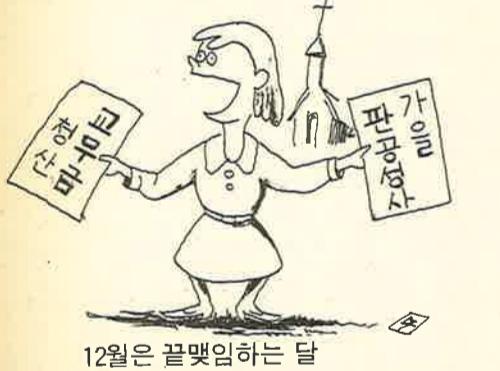
개인 뒤 따스한 하늘처럼 밝고 아름답게 살아가자고

살해보는 이 늦가을, 그래도 가슴 한구석에서 숨쉬고

고독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약

인가 보다.

숲정이 산책



12월은 끝맺임하는 달

12월, 그 아쉬움에

이영순(비비안나)/오룡동 성당

한해가 부질없이 쓰러져가고 있다. 한 장 남아 달랑 거리는 달력에서 거울보다도 더 선명하게 반추되는 나의 모습을 본다.

한해를 뒤돌아보기도 하고 반성에 이르기도 하며 회한을 갖기도 하는 일체의 외적 가식에서 벗어나 자기를 조용히 대면하는 시각에야 비로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밖으로만 외쳐대었던 정열이며 기운을 소리없이 안으로 되새겨 조용히 내성에 도달할 때이다.

인간이 말을 하고 살 수 있음은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축복인가.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몹시 괴로울 때가 있다.

편견과 위선과 아첨 등 평소에 나 자신은 얼마나 많은 가식에 사로잡힌 말을 하고 사는지 모른다.

내 주위의 가까운 친지와 이웃들,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까지 조차도 가혹하게 대하고 상처입히는 말들을 많이 했다.

내 아이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 남편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내 이웃은 또한 얼마나 서운했을까?

조금만 더 가슴을 열어 따뜻하게 대해주었더라면….

한번 뱉고 나면 거두어들일 여지가 없는 말의 특성을 더욱 절감하게 한다.

좀 더 분별있고 예의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반성해본다.



마음의 불을 밝히며

이복자(막달레나)/인후동 성당

언제부턴가 한해 한해를 더하면서 세월이 가고 오는 걸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또 한해가 가는구나.’ 40대라는 별명이 붙은 탓도 있겠지만 손 안에 가득했던 젊은 날에 소중한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하나하나 빠져나가 버리고 빈 주먹이 되어가기 때문이리라.

한해가 시작되면 올해는 알뜰하게 계획하고 성실하게 후회없이 보내야지 다짐하고 다짐해도 언제나 이맘 때면 메말라가는 대지와 차가운 바람을 이기지 못하여 잉잉 울어대는 양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절망 아닌 허탈한 마음이 되어버린다.

올해도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지만 한때는 나 자신에게 간혀 해어나기가 힘든 날도 많았었다. 여러 모양의 만남(관계)들 또한 무수히 작은 오해들 때문에 깨지고 다치고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주위에서 종종 보고 느꼈다. 그때마다 각 사람의 고유한 색깔을 존중하고 이해해주어야 한다는 각오로 만남을 유지해왔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우리 신부님의 격려 말씀대로 세상만사 모두 ‘그려려니’ 하라고 하신 말씀이 나 자신을 편하게 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어쩐지 뒷맛이 씁쓸하게 들림은 왜였을까?

상처받았을 때, 소외당했을 때, 남의 혀끝에 오르내릴 때 등, 인파옹보의 법칙을 생각하면 훨씬 자신의 싸움에서 하느님께로 겸손하게 다가갈 수 있음을 알았다. 아팠던 기억보다 좋은 교훈으로 남기도 했다.

비록 한해가 성큼 다가고 달력 한장을 남기고 있지만 차분히 나 자신을 가다듬고 조용히 마음의 불을 밝혀 보리라.

역시 TK 군단



민영방송의 주주는 아니나 다를까 바늘 구멍도 넓혀서 들어간다는 ‘TK군단’의 하나.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날치기 통과시킨 방송관계법에 따라 새민영방송이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민방 내정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배주주인 ‘태영’이 민자당원 유력인사 10여 명의 후원회에 가입한 사실이 밝혀져 로비와 관련한 금품 제공이 아니냐는 의혹을 야기.

김재순 전 국회의장을 비롯 이종찬 씨 그리고 인천 폭력배 꿀망파

두목 석방 탄원서를 냈던 서정화씨도 포함됐다.

지난날 군납과 관급공사와 연결된 언론인들의 비호 아래 급성장한 ‘태영’이 6공화국 최대 이권을 냈다니 알만.

민주니 통일이니 헛소리하는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오로지 정권안보를 향한 충성으로 성실한 언론신하가 되겠다고 벼르고 있을텐데.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가 대서특필되고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3~4백만 원씩 돌렸다니 의혹은 계속 꼬리를 물기만. [중]

남성 신사복 전문 판매 마출
우여러분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한복파션 명성양복점

☎ 88-5595
자 84-3476
221-9940
전동 전주교 다리 옆
이 시 몽(성수)

정모한약방

최성용(요한)
정순옥(유리안나)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58

☎ 84-7886

정심木 공업사

구·제대·강릉대·제구장·긴의자
상·화분대·흔례용기구 맞춤전문

서 스텔파노(올봄)
한 안나(은은)

☎ 77-1747

신부 부케 진문점

진선미꽃집
이마리아
벌 디또
☎ 84-2628

태화신발백화점

신사화·숙녀화 } 총판매장(공장직영)

아동화·특수화 }

김문식(베드로)
☎ 82-3118

봉남문 품각 송악국 사거리

도시 감각의 패션 구두

브랑누아

김순희(미카엘라)

전주자점(오거리)

코아백화점 개장

☎ 88-5043

웨딩 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최영자(헬레나)

☎ 88-6951

동서광통로 신탁은행 앞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출·대여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수시모집·해외연수생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2-8653

명진식당

[우죽탕 전문]

이분옥(소화데레사)

이리시 청인동 1가 131-6번지(중앙시내)

☎ 855-6773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홍부보쌈

오재천(안드레이)

정봉교(미카엘라)

효자동 우진아파트 앞

☎ 223-0297~8

연지·곤지·웨딩드레스

약혼복·무대복·마출대여

비데오·아외스냅촬영

신부화장

유순례(기타리나)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 82-2347

부인주단

김한중(요한)

황인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옆

☎ 84-7294

개업안내

풍년회관

길불정(스테파노), 이정옥(안나)

덕진구 동산동 대교탕 지하
(북전주 농협앞)

연회석 300석, 주차장 완비

☎ 76-0243

1990. 12. 2

사목회장 30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1고린 3,23).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목되어 하느님의 충실한 도구로 칠십 평생을 한결같이 살아온 삼례 성당 전 사목회장 최병윤 회장님!

현관문을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연세에 비하여 훨씬 젊어 보였다. 30년 동안 본당 사목회장을 맡아 교회활동에 차분하게 적극적으로 해온 연륜에서인지 평화로운 모습이 마음을 푸근하게 했다. “저는 큰 굴곡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인데 자격이 있을까요?” 하며 약간은 부끄러운 듯이 말씀을 시작하였다.

그는 4세 때 조실부모하여 형수의 손에서 성장하였다. 학창시절 때 친구의 권유로 신앙에 처음으로 눈뜨게 되었고 그후 대부분이 되어줄 분의 말을 통해 결정적으로 신앙을 가져야겠다는 결



심을 하게 되었다. “너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으며 영세 받기 전이었지만 조과만경과를 매일 바쳤다. 그는 19세에 영세를 받았는데 그때의 기쁨은 대단히 커졌다. 그것은 일찍 여원 부모 대신으로 영적 부모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곧 공소 청년회장직을 맡았고 삼례 성당을 신축하면서 본당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자들간에 분열이 생기어 그 공사를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고 3년 후에야 다시 성당을 짓게 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내가 먼저 행하는 기쁨

최병윤(프란치스코) / 삼례 성당

또한 공사장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죽을 뻔한 위험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런 체험들이 그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만들곤 했다. 이외에도 꾸리아 단장, 신협 초대,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본당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했으며 항상 솔선수범하여 봉사하는데 아낌없이 자신을 소모하였다. 이에 교회는 그의 지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표창장을 세 번 주었으며, 교황청

에서도 십자가상을 주었다. 회장직을 사임한 후에도 레지오 단원으로 계속 예비자를 모으고 냉담 교우를 방문하면서 선교에 열심이시다. 그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모든 신자가 성당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일치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오늘도 그의 삶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다”는 신조 아래 철저히 먼저 봉사하는 삶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신앙과 모습에는 꿋꿋함과 평화로움이 가득하다.



효십이 (904) 김병모

이승만정권때 강파 때문에 못살겠다고 국민학생이 자살한 사실이 있읍니까?

없오!

박정희 전두환정권 때는 있었읍니까?

없오!

그렇다면 노태우정권 때만 있는일인가요?

그렇소!

길이 길이 역사에 남을 사실이군요!

그렇소!

부안 성당



여름 해변미사의 명승지



국립공원 변산반도와 광활한 계획 간척지를 갖고 있는 부안 성당은 9개의 공소가 있으며 농업과 상업을 생계로 살아가는 가난하지만 뿌리 깊고 신앙이 두터운 신자들로 끊임없이 풋풋한 인정이 넘치는 본당이다.

이 본당의 역사를 살펴보니 덕리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은 정시돈 회장에 의해서였고 이어 그 일대에 공작리, 만석동, 등용리 등이 생겼으며 그중 만석동 공소는 초대 교구장인 김스테파노(양홍) 신부와 김바오로(창현) 한국인 초대 몬시뇰과 그의 조카 김도밍고(영태) 신부의 출생지이다.

등용리 공소는 김요한(성오) 회장이 설립했으며 변산을 근거로 블무동, 공작리, 만석동에 사는 교우들을 찾아다니다가 부안 지방의 첫본당인 등용리를 개척하면서 사방에서 교우들을 모아 신부를 모시는데 주력한 그는 성 김안드레아 신부의 근친이다. 수류 지방에 속하다 정읍 본당

들을 맞고 있는 부안 본당은 그 뿌리가 깊듯이 신앙도 인정도 우리네 가슴을 훈훈하게 해주는 본당이다.

“

깊은 신앙과 풋풋한 인정이 넘치는 본당

”



철저한 개인지도
한미래속설학원
정회연(대미아노)
이경애(로마나)
북부시장 앞
☎ 75-2534

☏ 형식승인 ☎ 3-7-3825 발명특허원 3523호

Bio Ceramic
원적외선요·사우나

원적외선 방사로 여성의 생리까지 막게 해주는 제품. 확실한 혈액순환으로 신경통, 생리통, 관절염, 피로회복, 속면, 고혈압, 저혈압, 종종 및 암 예방

Bio Ceramic
디보청자특별주문생산
전화문의 흰영 ☎ 73-0773
신박토리노·장미카엘라

한국다보

- 교구 사진동우회 : 12월9일 오전7시 가톨릭센타.
 - 예비 신학생 모임 : 9일 오후2시 가톨릭센타(부모님과 함께).
 - 전북일보 천주교 고정란(7면) ‘성당의 종소리’ 안내 : 3일(월) – 현금은 왜 하는가? (정인섭 선생), 5일(수) – 사랑과 분노 (최용준 신부), 8일(토) – 트리(홍보국).
 -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 3일 10시30분 가톨릭센타 3층 강당.
 - ‘사랑의 다리’ 회원 피정 : 12월10일(월) 9시30분 – 16시30분 가톨릭센타 3층 강당 지도 – 양경배 신부(성소국장) 대상 – 회원 · 일반신자. 회비 – 3,000원 접수 – 5일까지, 사회복지회(85-5290).
 - 도통동 성당 주소 변경 : 남원시 도통동 27-2.
 - 전화번호 변경 : 부안성당수녀원 84-1332, 유치원 84-1004
 - 가톨릭교리신학원 신학통신교육부 신입생 모집 : 기간 – 2년 서류 – 입학원서, 사진3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접수 – 91년1월 17일 ~ 2월2일 문의 (02)745-8339.
 - 파티마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 6일(목) 10시 – 16시 강사 – 김병오 선생, 미사도구, 북주, 도시락 지참.
 - 성소모임 성령선교수녀회 : 9일 오후2시 본원(02)764-4750, 천주의 성모한수도회 : 9일 오후2시 본원 (062)54-0041, 까리따스수녀회 : 9일 광주교육관 (0652)72-1222.
- * 축! 영명 : 3일(성프란치스코 사례비오) 고경훈 신부님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간식은 이제 엄마 솜씨로—

사랑스런 자녀들의 간식으로 인스턴트 식품이나 햄, 소세지 등 가공식품을 주기보다 엄마의 사랑과 솜씨로 만든 음식들을 마련합시다. 아울러 인스턴트 식품이나 청량음료 등이 건강과 환경에 좋지 않음을 얘기해주도록 합시다.

보람이네 김치직매장

김주 주문판매, 김장용 절갈 판매
각종행사, 애사, 경사, 야유회 및 김장김치
• 전화 주문 환영 •
윤희숙(모니카), 이영국(데리사)
군산시 나운동(성은교회) 앞
☎ 465-6677

베비라

출산 준비물, 유아복 및 아동복
이명역(데리사)
관통로 풍년제과 앞
☎ 83-3610

† 저희 아버님 강수남(야고보)
께서 돌아가셨을 때 기도해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가족 일동 드림

저의 아버님

박규철(프란치스코)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실에 대해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도록
기도해주시던 교우,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들 박종락(조화서 베드로)
며느리 안화동(프리스카)
손자 박재형(세베리노)
재범(아우구스티누스)

광명안경원

☎ 74-1123
77-1123

고교 신입생 반

개강 12월 18일

겨울방학 단과 강좌

개강 12월 27일

대입 종합 반

개강 1월 7일

대학 전문점 쭉한샘학원

전주 74-7424, 85-7424 시청역 동방생명앞

신서일가스 서일전력공사

가스 공급 전문업소 · 전기공사 전문업체

가스 차량 각동에 배치 신속하게

정당 배달을 약속합니다.

☎ 72-0678, 75-8688

251-3555, 4-3375

정진권(비오로), 최영희(마리아)

개소주 · 흑염소 · 고양이 · 붕어즙
각종 동물 중탕 전문

효자흑염소

하영이(베로나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49-5번지
☎ 222-3700

황수경산부인과

여의사
산부인과전문의

황수경(크리스티나)
이승렬(엘리야)

관통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골목

☎ 84-7272



순례자의 자세

이세실리아／원평 성당

만산홍엽,
참 좋은 계절에 빨갛게 익어가는 열매를
보니 생각나는 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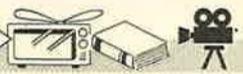
작년 이맘 때쯤 우리 일행 십여 명은
치명자산에 올라 기도를 드리고 내려오
다가 약수터 근처에서 싸가지고 간 점심을
먹게 되었다. 마침 우리 옆에도 점심 보
따리를 풀고 고픈 배를 채우려는 일행이
있었는데 그들은 양념에 재인 고기를 가
스불에 올려 놓고 지글지를 냄새를 풍기
는데, 군침이 넘어가기보다 우리가 무엇
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잖이 느
끼게 되었다. 북주알을 굴리며 오르는
교우분들을 보니, 여기 온 목적이 무엇
이었던가 반성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었
다. 두번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꾀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했다. 그중에는
잘 익은 열매가 달린 가지를 꺾어 들고
내려온 사람도 있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당 국민학생들을 데
리고 천호 성지를 다녀오신 수녀님께서
들려주신 얘기는, 순교자들의 정신을 조
금이라도 일깨워주기 위해 간단한 요기만
시키고 강행군을 했었는데 막상 그곳에
다다르니 어른들의 추태를 보여주게 되
었다는 것이다. 성지순례 오신 남자분들
이 한쪽에선 고스톱을 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선 학성기를 가지고 놀자판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중에 평범한 것을 잘
잊고 살게 된다.

성지순례중에 근처에서 예쁜 꽃이나
열매는 꺾지 않아야 되고 배가 고플 땐
조심스럽게 요기나 했으면 불쌍사납지
않았을 것이다. 더더구나 성지에서 고스
톱에 고성방가라니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알고 봅시다



엄마들을 위한 영화

‘네번째 동방박사’ 상영

일시 : 12월 10일 오후3시.
장소 : 교구청별관1층 소강당(문의85-0041 홍보국)
회비 : 1,000원

진정한 크리스챤은 누구인가?

대림을 맞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게 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지 않으시렵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 값진 보석을 마련하여 그리스도께
바치고자 길을 떠난 아르타반은 세 동방박사와 함께 경
배할 생각이었으나, 고난에 처한 이웃을 도우다 늦어져
평생을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게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여러분 중에 네째 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 대림절에 권해드리는 책

오는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고 견딜 때 오시는 하느님은 벌써
내 안에 와 계시며 조용히 나를 포옹하신다. 오소서,
주여! 어서 빨리 오소서.

C. 까래또/성찬성 2,000원 성바오로출판사

▣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

* 중앙 사제관 77-1713 수녀원 5-1714 주임신부 황인규
사무실 77-1711 유치원 77-1712 보좌신부 한병현
사목회장 황의목

1. 대림절불우이웃돕기 성미성금 운동 : 중앙가족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 신축성당돌기위한 2차헌금 : 오늘 모든미사중에
있습니다. 3. 소성당미사 : 3월(월)부터 평일미사는 소성당에서
합니다. 4. 유아세례 : 오늘 오후3시. 부모는 물론 대부분 꼭
참석바랍니다. 5. 병자편광성사 : 5일(수) 오후2시부터. 사무실
에 미리미리 신청바랍니다. 6. 사목회총회 : 7일(금) 오후7시30
분, 장소 - 강당, 참가대상 - 사목회고문, 감사 각분과 위원장, 부
위원장, 구역장, 반장, 자신심단체장(별지후면공고 참조). 7. 일
시생을 위한 미사 : 고등학교 - 8일(토) 오후7시. 대학교 - 15일
(토) 오후7시. 8. 모임 : * 사목회의 - 오늘 공식미사 후 * 대
미안회 - 5일(수) 오후7시 * 여성분과위원회 - 6일(목) 오후2
시 * 명도회 - 6일(목) 오후7시 * 구역, 반장회 - 7일(금) 금
요미사 후 * 제속형제회 심의회 - 다음주일(9일) 공식미사 후
* 오월의 마돈나꼬마시음 - 다음주일(9일) 오후2시. 9. 설가
대단원 모집 : 성탄절을 기해 어머니, 청년, 학생성가대 단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것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1991학년도 성모유치원 원아모집 : 만5 - 6세 원서교부 - 12월5

FAX 251-3850 사제관 251-1912 주임신부 왕수해
* 금암 사무실 251-1911 보좌신부 251-1913 보좌신부 이사정
사무회장 정주환

※ 오늘은 대림 제1주입니다(B해시작).

1. 사목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해설자·복사단(성인)교육 : 오늘 공식미사 후(성당).
3. 구역장·반장님 회의 : 차주 공식미사 후.
4. 교육기축회 : 차주 공식미사 후. 5. 애경회 : 차주 저녁미사 후.
5. 통신교리 수료하신분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6. 91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 오늘까지.
7. 연도대회 : 1등 능하신 동정녀, 2등 황금의 궁전, 3등 증거자의
모교.
8. 금주 전례 : 해설 - 김동진 독서① 박종철 ② 박인자
봉현 - 나인구 부부 복사 - 장유진, 김정수
9. 차주 전례 : 해설 - 나인구 독서① 차현우 ② 최우남
봉현 - 이수일 부부 복사 - 양정용, 조길태
10. 미사안내 : 로사리오의 모후Pr. 차주 - 황금궁전Pr.
□ 지난주 봉헌금 : 921,070원 □ 지난주 교무금 : 1,619,000원

*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252-2182 보좌신부 오성기
수·유 72-1222 사목회장 김낙현

※ 오늘은 대림 제1주입니다.

1. 진복회·요셉회 : 공식미사 후.
2. 까리파스회 : 4일 오후2시, 성심부녀회 : 5일 오전10시.
3. 푸른군대 피정 : 6일 오전10시.
4. 제대회 : 6일 오후2시.
5. 레이오 마리애 연차 충진목회 : 8일 오후2시부터.
6. 청년연합회 피정 : 12월8일 저녁9시~9일 새벽미사 까지.
7. 금주 기정방문 : 화요일 16분, 수요일 18분.
8. 91년도 분과별 사업계획서 제출 : 사무실.
9. 금주 본당청소 : 공경하윤 어머니Pr - 8일 오후2시.
□ 지난주 봉헌금 : 1,064,840원 □ 교무금 : 2,582,000원

농촌 엄마들의 성가 발표회

- 여산 성당 임마누엘 성가대 -

어린애 울음소리가 그쳐버린 농촌!
그래서 조용한 시골은 이제 적막하기까지
하다. 쟁쟁거리며 절주해대는 자동차처럼
도시로 도시로 빠져나가는 시골 사람들.
성당 다니는 사람이라고 예외일 리가 없
다. 몇 년 전만 하여도 북적거리던 큰
성당들이 공소처럼 변해간다. 그래도 고
집스레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모진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온 순교자들의 후예들, 곧
우리 신앙의 뿌리들이다. 그러기에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느님께만 충성을
다하려고 발버둥친다. 금번 여산 본당의
'임마누엘 성가대' 첫발표회 역시 그강한
몸짓의 하나일 것이다. 20여 명으로 구
성된 농촌 엄마들의 3부 합창 — 그 어
우러짐이 어떠할지 들어보지 않고는 상
상하기조차 힘들다. 전혀 불가능하게
여겨지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 그 첫선을
보이게 된다. 악보 해독은커녕 어우러짐
에 대한 감각도, 합창을 할 수 있는 성량도
없었던 그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고초를 겪어야 했을지… 또 이들을 지
도한 수녀님, 본당신부님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어떠했겠는가는 상상에 맡긴다.
순교자들의 피서린 땅을 밟고 사는 신앙
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장애가 많아 고
통도 컷기에 기쁨 또한 컸으리라. 그들은
이 아픔과 기쁨을 얼마 안되지만 소중하기
이를데없는 아이들의 교육관 건립에 바
치고자 한다. 12월 6일 7시30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여산 성당에서 갖게 되는
20명 농촌 엄마들의 합창단 - '임마누엘
합창단' -의 첫발표회를 기대해본다. 이
날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주 우리와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될
것이다. 어쩌면 노래가 아닌 진짜 성가를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
른다. 맘껏 축하해주자.

■ 동산동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순혁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수녀원 77-4212

1. 모임 : 꾸리아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빙천시오회 - 4일 오전
11시, 모이세회 - 6일 오후7시, 요셉회·동령회 - 8일 오후7시.
글라라회·안나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성탄준비 판공성
사 : 매 주일, 평일 미사전후(성사표는 사무실에 있음). 3. 초
중·고생 판공성사 : 8일 15일 미사전후. 4. 기정방문 : 4일 - 동
산5. 15일 - 동산7. 6일 - 동산6. 7일 - 내동공소, 8일 - 동산9. 5.
7일(금) 미사번경 : 내동공소에서 미사(어머니 미사 없음). 6.
전례 안내 : 금주 해설 - 김진례 ① 이춘삼 ② 최옥기. 차주 해설
- 이석규 ① 김용석 ② 전계복. 7. 구역미사 : 금주 - 화(4일) -
동산7구역. 8. 나눔잔치 : 금주 - 수(5일) - 팔복3구역. 9. 성
당청소 : 금주 - 공경하윤 어머니, 차주 - 매피의 모후. * 90년
교무금을 납부해 주시고, 91년 교무금을 신입해 주세요(교무금
신입서는 사무실에 있음).
□ 지난주 봉헌금 : 395,560원 □ 교무금 : 530,000원
□ 수요현금 : 50,400원

* 서신동

사제관 74-9261 주임신부 박성팔
사무실 74-9260 사목회장 박병열
수녀원 74-9262

1. 대림절을 맞이하여 회개와 보속으로 기쁨을 주는데 주님을 맞이
합니다. 2. 사목회 일원 : 회장 - 염규철, 부회장 - 이철수, 박영
수, 유회자, 총무 - 유준웅, 선교 - 김석철, 전례 - 이귀래, 재경 -
김남곤, 교육 - 김옥희, 홍보 - 박현기, 청소년 - 오정중, 사회복지
- 임길무, 애령 - 조인국, 여성 - 안춘자, 구역 - 광우자. 3. 성탄
성가 연습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4. 성서 공부 : 매주 화
요일 저녁미사 후. 5. 연말을 맞이하여 교무금과 신축금, 의자
대금을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금주 청소 : 1주 차
주 - 2구. 7. 금주 모임 : 공식미사 후 - 사목회, 성모회 차주 -
성소회, 윤뜨레이, 애령회. 8. 금주 전례 : 해설 - 김형식 독서①
김남성 ② 이영희. 차주 전례 : 해설 - 김형식 독서① 황상랑 ②
장남성.
□ 지난주 봉헌금 : 400,290원 □ 교무금 : 439,000원

* 송천동

사제관 74-8873 사무실 74-1004 주임신부 김태운
수녀원 4-1142 사목회장 김인철

- ※ 오늘은 교회 전례력의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 제1주입니다.
1. 예비자 빙아들이는 예식 : 다음주 공식미사 중.
 2. 초청강연회 : 3일 오후7시30분.
 3. 모임 : 성심부녀회 - 4일, 까리파스회 - 4일, 울뜨레이 - 4일.
 4. 구역장, 반장모임 : 5일 오후2시.
 5. 초·중·고생 판공성사 : 8일, 15일.
 6. 금주 본당청소 : 5구역 8일, 오전10시.
 7. 금주 전례 : 해설 - 이길호 독서 · 봉현 - 김재균, 임옥선 기도 -
문부봉, 최전순. 차주 전례 : 해설 - 김광자 독서 · 봉현 - 임창수,
장우경 기도 - 김재균, 임옥선 8. 성지개발 : 김수철 4만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684,820원 □ 교무금 : 1,140,000원

* 숲정이 사제관 76-1320 사무실 252-7366 주임신부 김동준
수녀원 252-9567 사목회장 김경주

1. 구역장모임 : 6일 어머니 미사 후.
2. 오늘모임 : 성모회, 푸른숲.
3. 사목회 정기총회 : 4일(화) 오후8시.
4. 구역모임 : 4~6일 * 숲머리 참조.
5. 다음주일 모임 : 울뜨레이.
6. 금주·차주 전례 : 진북2동4구.
□ 지난주 봉헌금 : 1,004,220원 □ 교무금 : 712,000원
7. 대림 제1주간 : 개어있다. 대림 제2주간 : 회개하자. 대림 제3
주간 : 고백하자. 대림 제4주간 : 겸손하자.
8. 성탄영세자 특별교리 : 수요일 오전10시, 저녁8시 통신교리 수
강자도 참석하세요.
9. 성탄성가연습 :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많은 참석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839,840원 협조에 감사합니다.

* 인후동

사제관 86-8876 수녀원 86-8875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86-5022 사목회장 정수일

1. 구역장모임 : 6일 어머니 미사 후.
2. 판공성사 성경읽기 : 로마서 전부.
3. 판공성사시작 : 12월1일 부터.
4. 영·죽간의 일을 미루리고 성탄과 새해를 맞이합시다.
5. 성사표가지고 고백성사보세요. 성사표는 평일에만 드립니다.
6. 각 분과 및 단체에서는 91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하세요.
7. 대림 제1주간 : 개어있다. 대림 제2주간 : 회개하자. 대림 제3
주간 : 고백하자. 대림 제4주간 : 겸손하자.
8. 성탄영세자 특별교리 : 수요일 오전10시, 저녁8시 통신교리 수
강자도 참석하세요.
9. 성탄성가연습 :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많은 참석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000원.
10. 미사안내 : 차주 - 모든 성인의 모후Pr. 차주 - 창조주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 720,100원 □ 교무금 : 1,151,000원